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Tuesday 3 May 2005 (morning)

Mardi 3 mai 2005 (matin)

Martes 3 de mayo de 2005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결하시오.

1(a)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謙虛)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5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肥沃)한

시간(時間)을 가꾸게 하소서.

10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15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현승 시집 [김현승 시초])

1(b) 우덕송(牛德頌)

말은 깨끗하고 날래지마는 좀 믿음성이 적고, 당나귀나 노새는 아무리 보아도 경망꾸러기다. 두꺼비가 입을 넓적넓적하고 쭈그리고 앉은 것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능청스럽다.

5 그런데 소는 어떠한가. 그는 말의 못 믿음성도 없고, 여우의 간교함, 사자의 교만(驕慢)함, 호랑이의 영큼스름, 곰의 우직(愚直)하기는 하지마는 무지(無知)한 것, 코끼리의 추(醜)하고 능글능글함, 기린의 외입장이 같음, 하마의 못생기고 제 몸 잘 못 거둠, 이런 것이 다 없고, 어디로 보더라도 덕성(德性)스럽고 복성스럽다. '음메'하고 송아지를 부르는 모양도 좋고, 우두커니 서서 시름없이 꼬리를 휘휘 돌려 "파리야 달아나거라.

10 내 꼬리에 맞아 죽지는 말아라."하는 모양도 인자(仁慈)하고, 외양간에 홀로 누워서 밤새도록 슬근슬근 새김질을 하는 양은 성인이 천하사(天下事)를 근심하는 듯하여 좋고, 장난꾼 아니놈의 손에 고삐를 끌리어서 순순히 걸어가는 모양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거룩하고, 그가 한 번 성을 낼 때에 '으앙'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뜨고 뿔이 불거지는지 머리가 바수어지는지 모르는  
15 양은 영웅(英雄)이 천하를 위하여 대노(大怒)하는 듯하여 좋고, 풀판에 나무 그늘에 등을 꾸부리고 누워서 한가히 낮잠을 자는 양은 천하를 다스리기에 피곤한 대인(大人)이 쉬는 것 같아서 좋고, 그가 사람을 위하여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받을  
20 같아 넘기는 것이나 짐을 지고 가는 양이 거룩한 애국자나 종교가가 창생(蒼生)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과 같아서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위하여 일하기에 등이 벗어지고 기운이 지칠 때에, 마침내 푸줏간으로 끌려 들어가 피를 쏟고 목숨을 버려 사랑하던 자에게 내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은 더욱 성인(聖人)의 극치인 듯하여 기쁘다.

그의 머리에 쇠메가 떨어질 때, 또 그의 목에 백정의 마지막 칼이 들어갈 때, 그가 '으앙'하고 큰 소리를 지르거니와, 사람들아! 이것이 무슨 뜻인 줄은 아는가?

25 "아아! 다 이루었다."하는 것이다.

(이광수, 한국고등학교 교과서)